

女골퍼들, US오픈에 도전장

3일 개막 20명 출전... 고진영·김세영, 생애 첫 우승 노려·김아림, 대회 2연패 나서

(현지시간)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총상금 550만 달러)에 도전장을 던진다.

올해로 76회째를 맞는 US오픈은 오는 3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더 옴니파크클럽(파기·6548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한국 선수들은 역대 US오픈에서 좋은 기억이 많다.

박세리(44)는 1998년 한국인 역사상 첫 US오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후 2005년 김주연(40)이 우승을 차지했고, 박인비(33)는 두 차례(2008, 2013년) 챔피언이 됐다. 2009년 지은희(35), 2011년 유수연(31), 2012년 최나연(34), 2015년 정인지(27), 2017년 박성현(28), 2019년 이정은(25)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세계랭킹 70위로 힘겹게 US오픈 출전권을 얻은 김아림(26)은 깜짝 우승을 차지해



오는 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 US오픈 2연패에 도전하는 김아림

코로나19로 지친 한국 골프팬에 잠시나마 기쁨을 줬다.

올해는 20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정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의 대회 3연패를 겨냥하고 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과 3위 김세영(28)은 생애 첫 US오픈 우승을 노린다.

지난주 LPGA 매치플레이어에서 컨디션 조절한 박인비는 통산 세 번째 정상에 노크하고 있다.

김아림은 대회 2연패에 나선다.

김인경(33), 김효주(26), 박희영(34), 신지은(29), 안희영(32), 이미림(31), 이미현(28), 허미정(32) 역시 목표를 설정하고 대회에 나선다.

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이다연(24)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 도전하고, 아마추어 박보현(18)은 생애 첫 US오픈에 참가한다.

대회는 스트로크 플레이로 36홀을 치른 후 상위 60위(등타 포함)까지 본선에 진출한다. /뉴시스



프로농구 국가대표 슈터 전준범이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전주 KCC 유니폼을 입는다.

‘국가대표 슈터’ 전준범, KCC 行

현대모비스와 FA계약 후 트레이드

프로농구 국가대표 슈터 전준범(30)이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통해 전주 KCC 유니폼을 입는다. KCC는 1일 현대모비스로부터 전준범을 받고, 포워드 박지훈(32)과 가드 김지후(29)를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는 자유계약선수(FA)가 원 소속구단과 먼저 계약을 한 뒤 곧바로 트레이드하는 것이다.

2020~2021시즌을 마치고 FA 신분이 된 전준범은 지난달 31일 현대모비스와 계약기간 5년, 보수 1억5000만원(연봉 1억2000만원·인센티브 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트레이드를 통해 KCC로 이적하게 됐다.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현대모비스 유니폼을 입은 전준범은 한 팀에서만 뛰다가 처음으로 팀을 옮기게 됐다.

2015~2016시즌 팀의 주축 선수로 발돋움한 전준범은 2016~2017시즌 평균 10.4득점, 경기당 3점슛 2.5개, 3점슛 성공률 41.6%를 기록하며 커

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2017년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슈터로 활약했다.

2017~2018시즌을 마친 뒤 군에 입대했던 전준범은 군 복무를 마치고 2020년 2월 현대모비스에 복귀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2020 시즌이 조기 종료되면서 3경기 출전에 그쳤다. 전준범은 발뒤꿈치 부상에서 돌아와 치른 2020~2021시즌 평균 5.6득점 2.3리바운드, 3점슛 성공률 34.6%의 성적을 거뒀다.

KCC는 “전준범 영입을 통해 전문 슈터 공백을 해결하고, 보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갖춰 송교창, 이정현, 라건아 등 기존 선수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트레이드 배경을 밝혔다.

2012~2013시즌 데뷔해 2018~2019시즌까지 원주 DB에서 뛰던 박지훈은 2019년 11월 트레이드를 통해 현대모비스로 이적한 뒤 한 시즌을 뛰었다. 2020년 11월 트레이드를 통해 KCC로 옮겼던 박지훈은 한 시즌 만에 현대모비스로 돌아오게 됐다. /뉴시스

‘브레이킹 선수 성장 지원’

신한금융그룹, 댄스스포츠연맹 후원키로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이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후원에 나선다.

신한금융과 댄스스포츠연맹은 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후원 계약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브레이킹 국가대표팀의 메인 후원사로 향후 4년간 국내 대회 및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개최하는 ‘브레이킹 K 시리즈’의 프리젠틱 스폰서로 참여해 브레이킹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브레이킹 종목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을 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브레이킹 선수들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레이킹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최초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댄스스포츠연맹은 세계댄스스포츠연맹(WDSF)이 공인한 정식 기법단체로 2001년 설립됐다.

브레이킹 종목은 지난해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짧은 층의 인기를 기반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5년 대한스키협회를 시작으로 대한탁구협회, 대한민구배구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하키협회 5개 종목 국가대표팀을 지원해 왔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유인택 사무처장 직급 3급에서 2급으로 조정

전북체육회 유인택 사무처장의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2월 임명된 유 사무처장은 전북 체육의 실무를 책임지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등 대외적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그는 체육교류사업, CI(기업 이미지 통합) 개발, 체육영재 발굴 추진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유인택 사무처장은 “책임감을 갖고 도민들에게 올바른 체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 체육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